



**6 Focus**  
**자랑스러운 동국인**  
**산악인 박영석 동문 인터뷰**  
 “퍼센트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한다”  
 박영석 동문에게 불굴의 도전정신에 대해 들어본다.

# 동대신문

**금지언어**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식에 된다. 마치 어린이들이 까마귀를 놓아 버린 것처럼.  
 숫다니파타 소품 271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88호 2010년 (불기 2554년) 3월 1일 월요일

Cover Story 약학대학 유치 성공을 계기로 본 대학발전 전략

## 동국발전은 의생명과학캠퍼스에 달렸다

약대 유치로 대학 위상 제고, 의생명과학캠퍼스 육성 위해 전력 다해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부지에 조성될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조감도

우리대학이 지난 26일 약학대학(이하 약대) 신설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10월 서울대 전(前) 약학대학장 천문우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약대 유치에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8일 약대 1차 서류심사 통과에 이어 2차 현장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약대 유치를 이뤄냈다. 당초 예상과 달리 20명이라는 적은 인원 배정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약대 유치에 따른 연구 실적 강화, 우수 인재 유치, 대학의 이미지 제고(提高) 등 여러 기대 효과에 대해 동문과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밸류체인 갖춘 일산 캠퍼스

약대가 신설된 이후에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연구 성과의 증가다. 약대 자체 연구 성과 뿐 아니라 타 단과대에 대한 연구 파급효과,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이하 일산 캠퍼스)에 조성된 병원, 입주 예정인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로 인해 관련 분야 연구 성과가 증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일산 캠퍼스에는 1000여 병상 규모의 일산병원·한방병원이 위치하여 의학, 한의학 임상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학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디스플레이전문대학원 등을 결집(結集)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산 캠퍼스에 약대가 신설되면 기초, 개발, 전임상시험, 임상시험이라는 밸류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 4단계를 우리 대학 내에 갖추게 되는 것이다. 밸류체인이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과 기능, 그리고 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이영면 전략기획본부장은 “약대가 신설됨으로써 기초·응용 연구가 모두 다 일산 캠퍼스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협력적인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약대 유치로 대학 위상 제고

우리대학에 약대가 신설되면 인지도 상승은 물론, 많은 우수 신입

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호 입학처장은 “신약 개발 등 활발한 연구 실적으로 대학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우수 인재 확보에도 유리하다”라며 약대 유치 소식을 반겼다.

더불어 이번 약대 유치는 로스쿨 탈락과 대학평가에 실망했던 동문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동국대 사이버 총동창회(DUCCA)에서는 약대 유치 성공 소식에 많은 동문들이 축하의 댓글을 올렸다. 아이디 ‘동문’은 “조계종과 재단 그리고 동문과 대학이 한 뜻으로 협력해서 얻은 성과”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아이디 ‘졸업생’도 “재학 중에 로스쿨이 탈락돼서 많이 의아했고 서운했지만, 졸업하면서 약대 유치 성공 소식을 접하게 되니 매우 기쁘다”고 표현했다.

### 약대 어떻게 운영되나

우리대학은 앞으로 전문성 있는 임상약사에 대한 국가적 요구, 교육적 요구,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反映)한 ‘우수 약무(藥務) 수행 임상전문약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약대를 운영하고자 한다. 특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으로는 ‘임상약학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構築)’을, 지원전략으로 ‘교수학습 방법 혁신과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설정했다.

하지만 약대 운영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약학관 건립이다.

우리대학은 약대 최종선정발표 이후 2011년 2월을 약학관 공사완료로 목표로 약학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교과부

의 점검에 따라 추후 정원 재조정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영면 전략기획본부장은 “약학관을 1년 내에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사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단·대학·동문의 화합 결과

우리대학과 중단은 이번 약대 유치과정에서 전혀 없는 화합을 다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모교의 성공을 기원하는 동문들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과거 로스쿨 유치 과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중단과 우리대학이 함께 노력한 결과 약대 유치라는 쾌거(快舉)를 이룩해낸 것이다.

이러한 긴밀한 공조체계는 앞으로 대학발전과 관련된 상황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을 구성하는 전 구성원간의 컨센서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약대 유치를 계기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산 캠퍼스를 건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 본사사령

- ◇임 차장
- ▲대학부 1차장
- ▲이지연(문과대 국어국문2)
- ▲대학부 2차장
- ▲이슬비(문과대 국어국문2)
- ▲문화부 차장
- ▲백선아(예술대 불교미술2)
- ▲사진부 차장
- ▲최진아(경영대 경영2)
- 이상 3월 1일자



도반(道伴)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인류사회가 변화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른바 신조어라고 하는 것들이 수시로 생겨나고 있다. 신조어의 숫자가 늘어나자 국립 국어연구원은 외국에서 생겨난 신조어에 적합한 우리말 짓기를 공모하는 일을 시행하기도 한다. 2년 전쯤인가 국어연구원에서 ‘딩펫족(dinkpet)’에 적합한 우리말로 ‘맛벌이 애완족’을 선정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으며, 자녀 대신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사는 맛벌이 부부를 ‘맛벌이 애완족’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기사였다.

언어는 세대의 반영이다. ‘맛벌이 애완족’이라는 신조어를 쓰기로 했다는 것은 실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애완동물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볼아야 할 일이다.

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컴퓨터게임 문제로 인한 불화는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지난 설 연휴기간 중에는 한 청년이 게임중독 현상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거나 심지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애완동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자리를 컴퓨터가 대신 차지하고 있는 현상도 결코 지나치기 어려운 심각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스님들은 친구를 도반이라고 부른다. 부처님도 그러했고 역대 많은 고승들도 도반의 중요성을 수시로 역설하였다. 도반은 글자 그대로 길을 함께 가는 동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는 물리적 현상 이상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 길은 삶의 철학이나 가치, 목표 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도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예쁘고 충직한 애완동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재미있는 컴퓨터게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코 도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에게 이번 학기는 진정한 도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내 주위에는 나와 도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와 선후배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곳 동국에서 사람의 향내가 물씬 풍겨나길 기대해본다.

### 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 2 약대신설 최종 선정... 20명 정원
- 4 퇴임교원 인터뷰 & 신입교원 소개
- 5 문화 없는 대학, 대학 없는 문화
- 6 굳건한 정신의 표상, 산악인 박영석 석좌교수 인터뷰
- 8 봄 학위 수여식 화제의 논문
- 12 문화가정자녀 전형 합격한 새내기 동행 인터뷰

# 1년만에 기자 다 됐어요!

기자가 되고픈 새내기들! 동대신문사가 환영합니다



- 지원자격 10학년
- 모집대상 취재기자, 사진기자, 편집기자
- 원서마감 3월 18일(목) 오후 5시
- 면접일시 3월 18일(목) 오후 6시
- 문의 홈페이지(www.dgupress.com)의 게시판 또는 02)2260-3491~2
- 혜택 소정의 장학금 및 활동비, 신문사 내 PC제공

동대신문사

# 약대 신설 최종 선정... 20명 정원

## 교과부, 내년 대학별 심사해 2012년도에 추가 정원 배정키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현장 실사(實査) 결과, 우리대학이 약학대학 신설대학으로 최종 선정(選定)돼 20명의 정원을 배정(配定)받았다. 지난 26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약학대학 신설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우리대학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아주대, 한양대, 가톨릭대, CHA의과대까지 5개 대학 모두 신설대학으로 선정됐다. 5개의 대학은 대학별로 각각 20명의 정원을 동일하게 배정받았다. 약학대학 정원은 현재 1,210명에서 2011학년도부터 490명이 늘어나

1,700명이고 이 중 경기도에 배정된 증원인원은 100명이다. 약학대학 정원이 늘어나기는 1982년 이후 28년만의 일이다. 이번 선정 결과와 관련해 경영기획팀 유광호 팀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정원 수 보다 적게 배정받아 아쉽지만, 내년 대학별 심사 시 추가 정원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단 2011학년도에는 대학별로 20~25명의 정원으로 약학대학을 운영하게 하고, 올해 정원을 더 늘려 2012학년도에는 대학별로 최소 30명 이상의 정원으로 늘리겠

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과 투자계획의 이행(移行) 상황 등을 점검해 정원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약학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012학년도부터 정원 배정이 취소될 뿐 아니라,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약학대학 유치 심사는 1차 심사와 현장 실사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1차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교육·연구 여건 및 역량 ▲ 6년제 약대 설립기반 및 약학 관련 분야 발전 가능성(계약학과와 경우, 6년제 약

대 운영기반 및 발전가능성) ▲ 약학대학 운영계획 ▲ 교육 및 학생 총원 계획 ▲ 교육 연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계획 등 총 5개 영역이다. 한편 이번 약학대학 선정 결과와 관련, 정원이 지나치게 적게 배정돼 ‘나뉘주기 식’ 선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교과부의 약학대학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과 구실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어,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김할란 기자  
lan@dongguk.edu

## 2010학년도 입학식 개최 3,000여 명 신입생 입학

2010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 입학식(入學式) 겸 환영회가 지난 23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2010학년도에는 약 3,000명의 신입생이 입학(入學)했으며, 수석(首席)으로 입학한 학생은 △인문계열=이승현(경행1) △자연계열=김지수(가교1) △예체능계열=황성원(영화영상)이다. 이번 입학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2부는 신입생 환영식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이정민, 이승기, 윤소이, 소유진, 박민영 등 많은 동문(同門) 연예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입학식에는 소녀시대 서현이 입학해 이목을 끌었다. ▶관련기사 7면

## 회전무대

### 약대 올림픽

○...여기는 약대유치를 놓고 열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약대 비상장. 우리대학을 포함해 아주대, 한양대, 가톨릭대, 차의과대 다섯 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드디어 경기는 시작되고 선수들은 서로 무서운 기세로 었치락 뒤치락 따라붙는데..... 모두가 죽속인 이곳,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소리를 지르며 제갈동굴 왕 “아!!!!!! 다섯 명이 동시에 골인 했네요, 이걸 뭐가요~ 금메달 다섯 개인가!!!!”

### 신입생의 좋은에 나쁜에

○...밤새도록 슬 먹고 다음날 강의 빠지고 공강일 때마다 당구장 가고 ‘뉘든지 대충인 10학번’ = 신입생의 나쁜에 1교시 아침 수업도 놓치지 않고 모든 수업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뉘든지 열심히 10학번’ = 신입생의 좋은에 10학번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입생이 되고 싶나요?

### 달인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달인을 만나다’의 이동국입니다. 오늘은 여대껏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만 받다가 최근 기준 점수만 넘으면 모두 통과되는 제도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변신의 달인 ‘College English’ 선생님을 만나 봤는데요, 변신의 달인으로 재탄생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평소에 비효율적이라고 비판만 들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기회에 이미지 갱신하면 좋겠습니다.”

## 재단이사회, 2010년 예산안 승인

### 조계종은 25일 이사·감사 후보 복수로 추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지난 25일 본관 로터스 홀에서 10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예산안과 신입교원 승인, 수익용 기본 재산 수용 등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宗立學校管理委員會)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이사 영배 스님과 정법 스님의 후임으로 범해 스님과 정호 스님, 그리고 홍호스님과 선각스님을 각각 복수후보로 추천했다. 또 감사 상운스님 후임으로 진화스님과 대전스님을, 진만스님의 후임으로 영관스님과 진만스님을 추천했다.

## 2010학년도 전체교수회의 개최

### 학사보고 및 강의평가 우수교원 시상

서울캠퍼스 전체교수회의가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교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약학대학 신설 유치 및 운영기획 △일산 의생명과학 캠퍼스 조성사업 △운동장, 수영장 매입 및 개발사업 등 대형프로젝트의 계획을 설명하는 학사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신규교원 소개와 함께 강의평가 상위권 교수에 대한 Best Teaching Professor 수상(受賞)이 있었다. Best Teaching Professor 계열별

수상자는 △인문사회=봉일원(독문) △자연공학=김삼동(전자공학)이며 단과대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불교대=이법산(불교) △문과대=김용기(일문) △이과대김득영(반도체) △법과대=김선정(법) △사회과대학=황하성(신방) △경영대=이재환(경영) △바이오시스템대=서태인(생명과학) △공과대=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 △사법대=조영석(체교) △영상미디어대=이현정(광고홍보) △예술대=이은혜(연극) 이외에도 △교양교육원=정호진 △영역강의우수교원=전영일(건축공학)교수가 받았다.

## 전자공학과 백수현 교수 ABI ‘올해의 인물’로 선정



전자공학과 백수현 교수가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의 ‘2009년 올해의 인물(2009 Man of the Year)’로 선정됐다.

### 화학공학과 공영대 교수

미국 ‘JCC 편집위원회’ 위촉



화학공학과 공영대 교수가 미국화학회에서 발행하는 조합화학 분야 저명한 저널인 ‘Journal of Combinatorial Chemistry’(SCI, I.F. 3.2)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 공영대 교수는 조합화학기반 약물성 라이브러리 연구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 북한학과 박순성 교수

#### 2011년 북한연구학회 회장 선출



북한학과 박순성 교수가 지난 12월 22일 명지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정기총회에서 2011년도 북한연구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김주의 둥이 인터뷰 - 예체능계열 수석 입학생 황성원 양

###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수석으로”

“저는 수석 입학생이기보다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석이 되고 싶어요” 올해 예체능 계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황성원 양이 ‘수석 입학’에 대해 갖는 소감이다. 황성원 양(영화영상)은 수석입학자라는 선명감을 무색하게 하는 겸손함을 보이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대학생들이 너무 기대된다”고 말하는 황성원 양. 개강과 동시에 시작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푼 모습이었다.

사실 그녀는 중학교 시절부터 방송부 임원으로 활동하며 음향 엔지니어의 꿈을 키워왔다. 그녀가 우리대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도 바로 우리대학에 개설돼 있던 ‘음향 관련 전공’ 때문이었다. 황성원 양은 “학교 방송실에서 음향 관련 기계를 볼 때마다 음향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섰다”며 “꼭 음향 관련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제게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며 지원동기를 밝혔다. 오랫동안 음향 엔지니어의 꿈



을 키워 온 그녀답게, 대학생이 되어 가장 해보고 싶은 일도 학내 방송국 활동이다. 그녀는 “일단 과에서 영화 찍는 활동에 주력하고, 가능하다면 방송국 활동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대학생이 된 후 경험해보고 싶은 일 중 ‘미팅’은 답이다. 사람들에게 1등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황성원 양. 그녀가 대학생활에서 무엇을 이루어 낼 지 황성원 양의 야무진 포부가 어떻게 실현될 지 기대해 본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10년 2월 1일 ~ 2010년 2월 21일

- 단위기금**  
(주)경비권면역행사(기업/재단, 5만원) (주)승진보원대리점(동문, 3만원) (주)유비(기업/재단, 10만원) 가정교육과동창회(동문, 355만원) 간호학과졸업생일동(동문, 150만원) 김포은경회집(기업/재단, 5만원) 계장수무원장(기업/재단, 10만원) 경주천원후(일반/기타, 5만원) 경주한우엘프식당(기업/재단, 5만원) 계경목장(기업/재단, 10만원) 고순희(불교/기타, 5만원) 국시집(기업/재단, 7만원) 권달영(동문, 1만원) 권오국(일반/기타, 10만원) 권오영(기업/재단, 15만원) 귀하한정식(기업/재단, 5만원) 김경분(일반/기타, 5만원) 김동훈(일반/기타, 10만원) 김남수(기업/재단, 15만원) 김명수(동문, 1만원) 김문영(동문, 1만원) 김병욱(동문, 2만원) 김삼경(서울/교수, 5만원) 김성달(일반/기타, 10만원) 김성희(동문, 2만원) 김숙희(동문, 5만원) 김순준(동문, 1만원) 김원경(학부, 2만원) 김원기(경주/직원, 5만원) 김영이(불교/기타, 10만원) 김영익(일반/기타, 1만원) 김영수(학부, 2만원) 김영재(일반/기타, 2만원) 김용기(학부, 2만원) 김용태(서울/교수, 5만원) 김원환(기업/재단, 10만원) 김재홍(동문, 1만원) 김재홍(동문, 1만원) 김정현(동문, 2만원) 김중성(동문, 1만원) 김중철(동문, 5000원) 김중해(기업/재단, 5만원) 김진호(기업/재단, 5만원) 김원희(일반/기타, 10만원) 김형규(기업/재단, 5만원) 김홍식(동문, 3만원) 노혜식(학부, 1만원) 도솔마을(기업/재단, 5만원) 도연연(일반/기타, 5만원) 박경숙(기업/재단, 10만원) 박병국(동문, 1만원) 박순백(기업/재단, 10만원) 방은주(동문, 1만원) 박일관(동문, 2만원) 박종철(기업/재단, 3만원) 박지영(일반/기타, 1만원) 박지연(학부, 1만원) 박종진(일반/기타, 1만원) 방영우(불교/기타, 1만원) 방중국(일반/기타, 10만원) 배성원(일반/기타, 5만원) 배영현(일반/기타, 10만원) 백광득(동문, 1

- (동문, 10만원) 정관장홍성선정(기업/재단, 5만원) 정광호(일반/기타, 10만원) 정동훈(서울/직원, 3만원) 정만영(학부, 1만원) 정재훈(동문, 3만원) 정현수(동문, 2만원) 정화승이순두부(기업/재단, 10만원) 조동태(기업/재단, 10만원) 조미숙(학부, 2만원) 조경호(동문, 2만원) 진병길(일반/기타, 2만원) 차병희(학부, 2만원) 초원삼계탕(기업/재단, 10만원) 최광일(학부, 1만원) 최덕규(동문, 3만원) 최성호(동문, 3만원) 최영진(일반/기타, 5만원) 최우호(일반/기타, 5만원) 최정희(기업/재단, 5만원) 최진식(경주/병원/직원, 10만원) 최진용(동문, 1만원) 최훈식(기업/재단, 5만원) 최희규(동문, 2만원) 최지치기(동문, 5만원) 풍년제약정주비밀방(동문, 5만원) 한민학(학부, 1만원) 한창용(기업/재단, 1만원) 함민자(기업/재단, 10만원) 해말회식당(기업/재단, 10만원) 한성원(기업/재단, 5만원) 홍창문(동문, 2만원) 화산식품(기업/재단, 10만원) SK석장주유소(기업/재단, 5만원)
- 병원발전기금**  
강운성(불교/기타, 3000원) 강태훈(불교/기타, 3000원) 강희림(불교/기타, 3000원) 권부성(일반/기타, 3000원) 권조록(일반/기타, 3000원) 김경(일반/기타, 1만원) 김남일(일반/기타, 5000원) 김미은(서울/교수, 1만원) 김봉준(불교/기타, 1만원) 김예린(불교/기타, 5000원) 김양순(불교/기타, 3000원) 김영미(불교/기타, 3000원) 김영민(일반/기타, 7만원) 김경원(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의경(불교/기타, 10만원) 김우정(일반/기타, 3만원) 김은영(경주/병원/직원, 3000원) 김인자(불교/기타, 20만원) 김재학(서울/교수, 5만원) 김준형(불교/기타, 3000원) 김태린(일반/기타, 5000원) 김창자(일반/기타, 1만원) 김형준(동문, 1만원) 노미숙(불교/기타, 1만원) 동광수님(동문, 1만원) 무수님(스님, 5만원) 박광호(서울/교수, 5만원) 박노준(불교/기타, 1만원) 박수연(불교/기타, 3000원) 박인옥(불교/기타, 3000원) 박정신(일반/기타, 20만원) 박주영(불교/기타, 3000원) 변지훈(불교/기타, 5000원) 변지희(불교/기타, 5000원) 보훈스님(스님, 3000원) 서정진(경주/병원/교수, 1만원) 서미혜(경주/병원/직원, 1만원) 서혜준(불교/기타, 5000원) 서은아(일반/기타, 3000원) 서은희(일반/기타, 5000원) 이상성(불교/기타, 10만원) 이석원(불교/직

- 원/교수, 5만원) 이재선(일반/기타, 1만원) 이재우(동문, 2만원) 이준(불교/기타, 5만원) 이지현(불교/기타, 1만원) 이호연(동문, 3만원) 장기복(서울/직원, 1만원) 장병진(서울/직원, 5만원) 조경민(일반/기타, 1만원) 조성배(서울/교수, 5만원) 조일재(동문, 1만원) 조지연(불교/기타, 1만원) 진성기(기업/재단, 5만원) 최원철(동문, 1만원) 최지연(동문, 1만원) 하선숙(불교/기타, 2000원) 하한기(동문, 1만원) 허천태(동문, 10만원) 황순일(서울/교수, 5만원) 황준(일반/기타, 10만원) 황준(서울/교수, 10만원) 황준(학부, 10만원) 김명수(서울/교수, 10만원) 김민수(학부, 10만원) 김미경(서울/직원, 2만원) 김미숙(학부, 10만원) 김민성(동문, 10만원) 김병환(동문, 2만원) 김봉주(서울/교수, 2만원) 김상우(서울/직원, 2만원) 김성일(서울/교수, 2만원) 김성태(동문, 3만원) 김석영(학부, 10만원) 김선우(불교/기타, 1만원) 김성수(동문, 3만원) 김성순(일반/기타, 1만원) 김성환(일반/기타, 2000원) 김성중(서울/교수, 5만원) 김성훈(동문, 2000원) 김세용(동문, 2만원) 김승연(서울/교수, 10만원) 김운자(학부, 10만원) 김우주(서울/교수, 10만원) 김여진(동문, 1만원) 김연수(불교/기타, 2만원) 김연희(동문, 5000원) 김연희(학부, 10만원) 김원규(경주/교수, 1만원) 김영민(서울/교수, 10만원) 김영선(동문, 1만원) 김영성(동문, 2만원) 김영순(서울/교수, 30만원) 김영일(불교/기타, 1만원) 김영진(서울/직원, 3만원) 김영환(학부, 10만원) 김우금(불교/기타, 1만원) 김우녀(일반/기타, 1만원) 김옥순(일반/기타, 1만원) 김용관(학부, 2만원) 김용태(동문, 3만원) 김유석(학부, 3000원) 김우태(동문, 5만원) 김윤경(일반/기타, 3000원) 김윤태(일반/기타, 2만원) 김은향(일반/기타, 5만원) 김진홍(경주/교수, 2만원) 김일환(동문, 5만원) 김장화(학부, 5만원) 김재성(일반/기타, 1만원) 김재성(학부, 10만원) 김재호(불교/기타, 1만원) 김경진(동문, 1만원) 권혁부(동문, 3만원) 권희정(불교/기타, 1만원) 권혁부(동문, 10만원) 김진호(서울/직원, 3만원) 김준환(학부, 10만원) 김지나(동문, 5000원) 김지태(불교/기타, 1만원) 김진용(일반/기타, 3000원) 김철용(경주/직원, 2만원) 김준식(서울/교수, 2만원) 김태성(동문, 1만원)



2010학년도 1학기 퇴임교수 인터뷰

“퇴임, 진정한 통일을 위한 연구할 수 있는 계기”

‘통일 연구 40년’ 퇴임 맞은 정용길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정한 화합은 무력을 통한 강제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화합은 이뤄진다” 이는 정용길 교수가 그간의 연구를 종합해서 쓴 저서 ‘독일 1990년 10월 3일 -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

30여 년 간의 교수생활 속에서 남과 북의 이면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통일을 바라던 정용길 교수. 이젠 그에게 교수로서의 종착점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정용길 교수는 ‘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미각지당춘초몽 계전오엽이추성)’이라는 주자의 한 구절로 퇴임하는 소회를 대신했다. 그는 “아직 교수라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어느새 정년퇴임이 훌쩍 다가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용길 교수가 국제정치를 연구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 먼 친척의 도움으로 독일 유학길에 오르게 된 정 교수는 그곳에서 우연히 당시 독일 정치학회장으로 재직하던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국제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독일 통일과 우리나라 통일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던 교수였다.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발전해 잘 된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교수로 살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전했다.

정용길 교수는 퇴임 후에도 통일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에 가서 자신이 쓴 책의 증보판을 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더 발전된 책을 보여주는 게 그의 작은 소망이라고 한다.



국제정치라는 학문에만 40여 년을 몰두해 연구를 해온 정용길 교수.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점수나 스펙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한다. 정 교수는 “학생들이 좀 더 학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모든 일이 끝은 또 다른 일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퇴임은 정용길 교수에게 인생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퇴임 후에도 우리나라의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의 연구가 계속돼 우리나라 통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를 기대해 본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황혜인, 정기섭, 이항우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인터뷰가 불가하여 사진과 간단한 약력으로 대신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황혜인 교수 (문과대학 독어독문학)



〈학위〉  
독문학 전공 / 서울대 학사 / Mainz대 석사 / Bonn대 박사

정기섭 교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학위〉  
국제정치 전공 / 동국대 학사 / 동국대 석사 / Heidelberg대 박사

이항우 교수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



〈학위〉  
경찰학 전공 / 동국대 학사 / 동국대 석사 / 동국대 박사

2010학년도 1학기 신규교원 소개



김영삼 교수 (이과대학 화학과)

아름답고 활기찬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가르침의 길을 시작하며 새로운 학생들과 학기를 시작하려니 많이 설렘니다. 교수라는 일방적인 직업의 의미보다는 여러분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과 많은 연구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생화학 분야 / 서울대 제약학과 학사 / 서울대 약학과 석사 / Rutgers대 약제학 박사 / 미네소타대 Post.Doc.



권기운 교수 (이과대학 수학과)

독일 괴팅겐대학 응용및수치해석 연구소, 미국 렌슬레어 공대 전기공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지내고 연세대의 공학부에서 전임으로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 진정한 수학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수치해석 및 의료영상복원입니다. 여러 학과에서 공동 연구한 경험이 있어서 동국에서도 여러 교수님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응용수학 분야 / 서울대 수학과 학사 / 서울대 수치해석-응용수학 석.박사 / 연세대의공학부 부교수



이창훈 교수 (바이오시스템대학 생명과학전공)

남산골의 조용한 교정에서 희망으로 가득 찬 학생들과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대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행복이 느껴집니다.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질병 현상에 대한 실험 관찰과 탐구를 통해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약사여래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중앙생물학 분야 / 서울대 제약학과 학사 / 서울대 생명약학 석.박사 / 국립암센터 책임연구원



이경 교수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전공)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학교의 한 구성원이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만남들이 기대됩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국대가 더욱 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식 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경험을 전달하여 장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국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앙생물학 분야 / 이화여대 약학과 학사 / 서울대 생명화학 석사 / 조지아대 의화학 박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최영희 교수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전공)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날, 뜻깊은 인연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되어 반갑습니다. 인접 학문과의 융합을 토대로 신약개발의 핵심 분야인 임상 중개 연구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100년 역사의 민족 사학 동국대학교에서 우리의 아름답고 큰 꿈을 완성해 나가는데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중앙생물학 분야 / 서울대 제약학과 학사 / 서울대 약물학 석.박사 / 서울대 BK21 연구교수



한정인 교수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유구한 역사의 동국대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수많은 동국인들이 쌓아 올렸던 지적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동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건학이념과 World Wide Dongguk의 Vision을 새롭게 새기고 실현하기 위하여 새내기 동국인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 연세대 금속공학과 학사 / 카이스트 재료공학 석.박사 / 전자부품연구원 수석연구원



강주현 교수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사회환경시스템 공학과의 강주현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민족사학에서 새로운 100년 역사와 세계 명문을 지향하는 동국대의 한가축이 되어 영광이며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항상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연구하여 모두가 더 큰 배움과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기술-지구환경 분야 /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 학사 / 고려대 환경공학 석사 / UCLA 환경공학 박사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교수



김흥수 교수 (공과대학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에 신규 임용된 김흥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행을 바랄 때도 있었지만, 매사에 성실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盡人事待天命”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랑스런 동대인을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로봇공학 분야 /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사 / 인하대 항공공학 석사 / 아리조나주립대 항공공학 박사 / 대구 카톨릭대 전임강사



이효정 교수 (사범대학 교육학과)

동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는 ‘넓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사람 사이의 인연은 어찌 보면 참으로 ‘작은 세상’임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바로 내 옆의 사람, 그리고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사는 수많은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배움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특수교육 분야 / 숙명여대 교육심리학과 학사 /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석사 / 캔사스대 특수교육과 / 이화여대 박사후 과정



장환영 교수 (사범대학 교육학과)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동국인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고, 저 또한 동국인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분야는 학교만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모든 교수학습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기업교육, 산업교육, 인적자원개발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즐거운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봅시다. 여러분의 멋지고 창의적인 도전을 기대합니다.

평생교육 분야 / 연세대 수학과 학사 / 워싱턴대 교육학과 석사 / 인디애나대 교육학과 박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김동한 교수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의 일원이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 학생, 선생님들과 더불어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수학의 한 분야인 동력학계 이론을 주로 공부하고 있으며 금융수학, 정보이론 등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의 여러 분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용수학 분야 /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사 / 카이스트 수학과 석.박사 / 수원대 전임강사



윤영도 교수 (교양교육원)

늘 그리워하던 모교에 부임해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돼 감회가 깊지만 후배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힘들어도 꿈을 접지 않고 늘 한 걸음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트랙 분야 /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학사 / Univ. of North Texas 언어학 석사 / Univ. of Washington 음성음운론 박사 / 나사렛대학교 조교수



현재의 대학문화는 대중문화와 별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학문화의 활력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 및 학회의 축제, 대학 축제의 상업화 등이 흔히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어느 대학과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대신문은 언제 기획을 통해 현재 우리 대학 문화 상황을 분석해보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학문화의 모습은 무엇인지 제시하려 한다.

# 문화 없는 대학, 대학 없는 문화

## 취업 문제로 학회 참여율 저조... 축제는 학생아닌 연예인이 주인공

### 연재 순서

1. 침체된 동양의 대학문화
2. 현 대학문화, 대안은 있는가?

대학문화란 무엇일까. 대학문화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학이란 공간에서 대학인이 주체가 되어 형성하고 향유(享有)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가 국가나 지역,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듯이 대학문화도 대학 설립 및 교육목표, 제도 등에 근거하여 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문화는 대중문화(大衆文化)와 별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1990년대 이후 '대학문화는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대학 역시 이같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국대' 하면 떠오르는 특정한 문화가 있을까? 우리대학은 어느 대학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대학문화의 활력소(活力素)인 동아리나 학회에 참여(參與)하는 학생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학문화 속에는 대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苦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대학문화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과 생각이 드러난다.

연재기획 '문화 없는 대학, 대학 없는 문화' 1편 '침체된 동양의 대학 문화'에서는 우리대학의 학생문화의 현 주소를 진단(診斷)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문화의 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중 하나인 동아리와 학회의 활동성을 집중 점검해 보고자 한다. 대학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인 만큼 학회의 활성화는 대학문화를 대변(代辯)하는 중요한 요소다. 또, 동아리 역시 학생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구현하는 장(場)으로써 그 중요성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 사라져가는 학회, 동아리

80~90년대 학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세미나를 개최(開催)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 학회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져 겨우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총 9개의 중앙동아리 학술 2분과의 경우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565명에서 314명, 12개 학회에서 9개로 줄었다.(표 참조)

사회과학대 내 학회의 학회장은 "우리 학회의 경우 1,2학년이 총 11명인데 지난 학기만 해도 5명이 영어공부, 공모전 준비를 한다며 나갔다"며 "지금은 남아있는 인원만으로 세미나를 개최해보려 하지만 적극성, 참여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학회 운영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취업부담에 동아리 참여율 감소

동아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동아리는 전공 공부 외에 자신이 평소에 꿈꿔왔던 열정(熱情)을 펼칠 수 있는 장이었다. 더불어 이들의 활동은 사회지향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아리에서 그런 대학문화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참여하는 인원조차 줄고있는 실정이다.

학생서비스팀 통계에 따르면 동아리 개수는 ▲2008년도 67개 ▲2009년도 68개 ▲2010년도에 60개로 나타났다. ▲2008년도 2,506명에 육박하던 인원은 ▲2009년도 2,231명 ▲2010년도에는 2,038명까지 줄었다.(표 참조)

왜 학생들의 참여가 줄어드는 것일까? 여기에는 사회적, 개인적 요인(要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하지만 단연 경제적 요인

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다. 경제 한파로 인해 대학졸업장만으로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취업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불안과 걱정은 가중되고 학생들은 취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더불어 동아리 내의 공동체적인 유대감(紐帶感)이 약해졌다. 대부분의 3, 4학년 선배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동아리를 그만 두기 때문이다.

중앙동아리에 속해있는 8개분과(표 참조) 영역별로 선정한 10개 동아리 중 1,2학년 분과가 80%인 동아리 수는 8개로 나타났다.

1학년 때 4개의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이상인(불교3) 불교대 학생회장은 "2006년만 해도 몇몇의 3, 4학년이 동아리의 집행부를 맡아서 했지만, 지금은 3, 4학년의 동아리 참여율도 저조(低調)해서 동아리 집행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나 단체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가르쳐주는 한글학교 '하람'의 경우 취업 시 기업이 요구하는 봉사활동과 외국어를 동시에 충족(充足)시킬 수 있는 수 있기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 하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해미(불미2)양은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14명 제한(制限)을 두고 면접을 통해 뽑는다"고 밝혔다.

### 누구를 위한 축제(祭典)인가

'종교, 여흥 심포지움', '농민법정', '응원제', '판소리공연', '금지곡경연대회', '공동체놀이' 이는 1980년대 행해지던 과거 동국대동제의 단상들이다.

대학공동체의 화합을 상징했던 80년대의 '대동제'로 대표되는 축제는 전체 동국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구심점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축제가 열렸다. 동아리들의 축제인 '동연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예인이나 전문가들에 의한 수동적인 축제가 아닌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동아리들이 선보이는 공연이 주를 이뤘다. 축제는 대학생들의 생각과 삶을 단면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직도 5월의 동악을 달구는 학생들의 축제는 과거처럼 대학생들의 삶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을까?

최근 3년간 축제는 마치 '축제 대자부'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매년 천편일률적이었다. 축제는 동연제, 목격가요제, 백상응원대전로만 구성됐고 그나마 학생들의 관심도 연예인 공연에 국한됐다.

매년 동연제의 경우, 인기가수의 공연 순서가 다가오면 무대중앙으로 몰려드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하지만, 가수들의 공연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들은 썰물처럼 노천극장을 빠져나가 버린다. 축제가 학생들 스스로 즐기는 마당이 아닌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생서비스팀 직원 조성환씨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늘리기 위

해 차선책으로 연예인을 동원한다"며 "진정한 축제는 학생들이 꾸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장 박인우(철학4)군도 "연예인 대신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싶지만, 학생들이 연예인 없는 축제를 즐겨워할 지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물론 연예인을 보기 위해 모인 학생들로 인해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進行)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콘서트에 불과하다. 즉 주인이어야 할 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을 손님으로 대우해버린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들의 의식, 참여도를 고려해 봤을 때 동악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축제로 부활(復活)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듯하다.

시대가 변했다. 취업 걱정 없던 과거와는 달리 현실에 얽매어 취업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날 대학생의 모습이다. 이들에게 과거 대학문화만큼 보다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대학문화를 구현하는 것은 쉽지않은 않은 것이다.

백선자 기자

amy@dongguk.edu

분과명/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학술 1분과	6개(152명)	6개(147명)	6개(147명)
학술 2분과	12개(565명)	9개(314명)	9개(314명)
예술·창작분과	8개(264명)	8개(222명)	8개(222명)
공연분과	10개(472명)	11개(401명)	11개(401명)
사회분과	4개(136명)	6개(241명)	6개(241명)
봉사분과	7개(229명)	7개(304명)	7개(304명)
연구분과	5개(121명)	6개(177명)	6개(177명)
체육·교양분과	15개(568명)	15개(425명)	7개(232명)
합계	67개(2,506명)	68개(2,231명)	60개(2,038명)

▲최근 3년간 정규 동아리 전체 현황(출처: 학생서비스팀)

### 매체비평



김학수 한국체육대 초빙교수

나름대로 방송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다. 어느 캐스터와 해설자가 맞닿는 입담을 하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됐다.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시청자들이 모처럼 방송 선택권을 놓고 예전과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동계올림픽을 보고 싶은 이들은 독점 중계를 하

는 SBS를 보면 됐으며 동계올림픽을 보고 싶지 않으면 KBS나 MBC로 채널을 돌리면 됐다.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밴쿠버 올림픽을 통해 모처럼 달라진 방송 3사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동안 획일화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방송으로 전과 의 낭비와 낭음이 얼마나 많았으며 많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이 방송 3사의 과도한 시청경쟁으로 봉쇄됐던 가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TV 환경은 그동안 극히 폐쇄적이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시즌이면 시청자들에게 마치 큰 선심이나 쓰는 듯 방송 3사가 주야장차 스포츠 중계만을 내보냈다. 그들만의 독단이었으며 횡포였다고 할 수 있다. 중계권료 부담을 줄이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위한 조처였다고 밝혔지만 월드

이벤트의 스포츠 중계를 통해 손쉽게 시청률을 올리고 광고수입을 올리겠다는 계산이 숨어있었다.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기간중에는 차별화된 방송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방송 태도는 세계의 흐름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프로야구, 미식축구, 프로농구 등은 방송 3사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해당 경기단체와 스포츠기구들과 각각 계약, 차별화된 스포츠콘텐츠와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일본 등은 공영방송 NHK가 워낙 위력이 막강해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권료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나 방송만은 한국과 같이 '앵무새 방송'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번 방송 3사의 중계권싸움도 그

렇다. 국민들은 어디서 중계하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나 방송 3사는 마치 무슨 큰 일이나 난 듯 정규 뉴스프로그램에서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불쌍사나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철저한 자사이기주의가 숨어 있었다.

올림픽을 독점 중계를 하는 SBS는 지방 방송사들과 연계돼 전국 방송사로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편적 접근권에 하자가 있는 듯 비난한 KBS나 MBC의 처사는 오히려 옳았으며 방송 3사의 공동 원칙을 깨고 독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한 SBS의 행동도 적절치 못했다.

밴쿠버 올림픽 직전까지 마치 올림픽 소식을 전혀 내보내지 않을 기세로 SBS의 비난기사로 목소리를 키운 KBS와 MBC는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이 쏟아지자 허겁지겁 SBS의 방송화면을 받아 금메달 뉴스를 내보낸 것은 너무 오만하면서도 기회적인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SBS는 이번 밴쿠버 올림픽을 비롯해, 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과 2016년까지의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해 스포츠 콘텐츠 경쟁에서 타 방송사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자

SBS는 앞으로 월드 이벤트를 스포츠 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야하며 KBS와 MBC는 과당경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월드 이벤트에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안이한 TV 카르텔로 시청자들의 볼 주권을 제한하고 천편일률적인 중계방송을 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 “1퍼센트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挑戰)한다”

## 굳건한 동국정신의 표상, 산악인 박영석(체교92졸) 석좌교수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대학은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2010년 1학기 동대신문 인물면에서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한다.

### 자랑스런 동국인을 찾아 <1> 산악인 박영석

편집자

인내의 예술, 위대한 행위, 언제나 최선이 요구되는 것, 삶의 방법. 이 4개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산악등반(山岳登攀)'이다.

등반에 대한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후배들에게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의 표상이 된 공을 인정받아 3월 1일자로 우리대학의 석좌교수에 임용된 박영석 동문을 만났다. 그에게 석좌교수가 된 소감을 묻자 “석좌교수가 되기에는 이른 나이인 것 같다”며 겸손해 했다. 그러면서 석좌교수 임명은 “모교와 계속해서 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 있어 모교 동국대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어릴 적 막연히 가지고 있던 꿈을 실현(實現)시켜 준 곳이기 때문이다.

#### 처음 밝은 정상에서 꿈을 찾아

그가 산악인에 대한 꿈을 처음 갖게 된 것은 네 살 때 아버지를 따라 북한산 백운대의 정상을 밟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 이후로도 그는 수시로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에 올랐다. 그러면서 검사나 의사를 꿈꾸는 주변의 친구들과과는 다른 탐험가의 꿈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세계 여행 전집'을 통해 북극, 히말라야 등 대자연의 사진을 보며 탐험가를 동경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 산악 인생의 기반 동국대 산악부

박영석 동문이 동국대 입학 후 결심하게 된 것은 시정 앞에서 동국대 산악부의 카퍼레이드를 본 순간이었다.

“동국대 산악부의 카퍼레이드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 이거다!’ 싶었다”며 그 당시를 회상했다. 막연히 갖고 있던 탐험가라는 꿈에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순간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등반보다 동국대 입학을 위해 공부했던 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

던 것 같다”며 동국대에 들어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육교육과 입학과 동시에 그의 목표였던 산악부에 가입하며 본격적으로 산악등반을 시작하게 된다.

“그 당시 동국대 산악부는 세계 최고의 산악부 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박영석 동문.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국대학학생동맹대회에서 동국대 산악부라고 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며 그 당시 동국대 산악부의 위상을 설명했다. 5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동국대 산악부는 박동문 외에도 현재 대한산악연맹과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으로 재직 중인 이인정 동문 등 많은 유명 산악인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산악부 시절 40~50kg이 되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반을 하고, 암벽에 매달린 채 얼차려를 받는 등의 고된 훈련을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 산악계의 살아있는 역사

그런 동국대 산악부에서의 고된 훈련 때문이었을까. 그는 산악계의 살아 있는 역사가 됐다.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達成)했다. 산악 그랜드 슬램은 히말라야 14좌 완등, 7대륙 최고봉 등정, 지구 3극점 정복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기록이다. 그의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은 지난 2005년 북극을 끝으로 완성됐다. 그는 GPS(위성항법장치) 수치가 90이 되는 순간 매우 기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뻐했던 것은 다시는 북극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라는 그의 말에 북극 정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후 “내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사실보다 한국인이 해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며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박영석 동문은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도 또 다른 도전에 대한 열정은 식



지 않았다. 히말라야 14좌에 코리안 루트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결국 그는 작년 5월 에베레스트 등정으로 가운데 최악의 난코스인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한국인 최초로 코리안 루트를 개척(開拓)했다. 이는 에베레스트에 18번째로, 남서벽에는 미국, 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개척한 것이다.

#### 가장 두려운 건 나 자신과의 타협

산을 오를 때마다 그는 두렵다고 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낙석도 눈사태도 아니다. 박영석 동문은 “등반을 하면서 나 자신과 타협(妥協)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타협하려는 자신이 두려워질 때마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감정을 버리고 기계처럼 움직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박영석 동문은 앞

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해 세계 최고의 탐험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 “석좌교수로서 동국 후배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배들에게 “인생은 도전의 연속인데 요즘 후배들은 실재를 두려워 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확고한 목표(目標)가 없기 때문”이라며 “후배들에게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숲한 산을 넘어 왔지만 아직 도전할 많은 산이 남아있다는 박영석 동문. 그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의 한계는 어디일까.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 산악 역사에 길이 남을 박영석 동문의 활약(活躍)을 그려 본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 박영석 주요 원정 기록

- △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세계 최단기간 등정 △ 세계최초 6개월간 최다등정 히말라야 8,000m급 5개봉등정 △ 세계최초 1년간 히말라야 8,000m급 최다등정 달성 (기네스북 등재) △ 아시아 최초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 세계 최단기간 무보급 남극점 도달
- △ 북극점 도달 △ 인류최초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 (기네스북등재) △ 단일팀 세계최초 에베레스트 횡단 등반 성공 △ 2009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 신루트 개척

#### 프로필

- ▲ 1992년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졸업
- ▲ 2003년 교육대학원 졸업 ▲ (주)골드윈 코리아이사 ▲ 한국대학산악연맹이사 ▲ (사) 대한산악연맹 이사 ▲ 서울시 홍보대사 ▲ 교육대학원 석좌교수



당신의 꿈을  
On Air  
하러!

DONGGUK UNIVERSITY BROADCASTING SYSTEM

##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신입국원 모집



모집기간 : ~2010년 3월 15일  
 모집방법 : www.dubscast.com 지원서 작성  
 모집대상 : 동국대학교 10학번 신입생  
 모집분야 : 제작부(PD) \* 보도부(REP) \* 영상음향부(ENG) \* 아나운서부(ANN)

임시소집 : 2010년 3월 15일 늦은 6시  
 면접 : 2010년 3월 17일 늦은 6시  
 학생회관 4층 교육방송국

본관스튜디오 02)2260-8503 학생회관 방송제작실 02)2260-8504

http://www.dubscast.com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환영합니다”  
10학번 입학식·환영식 성황리에 종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① 축하 공연에 환호하는 신입생들
- ② 입학식 전경
- ③ 축하 공연을 하는 백상용원단
- ④ 경품추첨을 하고 있는 연극학과 신입생 서현(그림 소녀시대 멤버)
- ⑤ 축하 공연을 하는 이승기 동문(국통09졸)
- ⑥ 입학식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이정민 동문(광고홍보 05졸)
- ⑦ 학부모로 입학식에 참석한 가수 이용



지난 23일 장충체육관 앞은 환영하는 재학생과 환영받는 신입생들로 북적였다. 바로 10학번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입학식은 이정민(광고05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입학식, 2부에서는 입학식 환영식으로 구성됐다. 1부인 입학식에서는 오영교 총장과 조계중 총무원장, 이사장, 총동창회장의 환영사 및 수석 입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가 있었다. 약 1시간동안 입학식을 진행한 후 2부 환영식에서는 신입생을 위한 여

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우리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석사과정에 있는 이승기(국통09졸)동문의 축하 공연과 더불어, 우리학교 동문인 윤소이, 소유진, 허이재, 박민영이 직접 캠퍼스 내에서 겪은 일들을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전달했다.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에서 소유진 동문은 "대학 졸업 할 때까지 CC(Campus Couple)를 한 번도 못해본 것이 가장 아쉽다"며 재학생 시절 아쉬움을 토로했다.

환영식의 마지막 순서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경품추첨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경

품추첨 행사에는 우리대학과 교류 협약을 맺은 이스타 항공에서 협찬한 제주도 2인 여행권 및 중국 동문회에서 협찬한 넷북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품이 준비됐다. 제주도 2인 여행권을 경품으로 받은 김유진(사과대 1)양은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셨던 부모님께 드릴 것이다. 입학하자마자 효도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미소를 지었다. '동국대 입학'이 이날 경품을 받은 김유진양에게만이 아니라 약 3000여명 신입생 전원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

이지면 기자 jiy88918@dongguk.edu

### 숨어있는 나를 찾아라!

동대신문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오는 17일까지 '숨어있는 나를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 동대신문사(본관 1층)로 오시는 신입생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The Dongguk Post

Dongguk University's English Magazine

## 44기 수습기자 모집

- 응시자격 :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10학번 신입생**
- 원서접수 : 3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 전형일시 : 3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 지원방법 :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국포스트에 **입사원서 접수**  
(입사원서는 사무실 직접배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
- 혜택 :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등
- 문의 : TEL 02-2260-3493



화제의 논문 - MBC 이재용 아나운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효과)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독립성 보장 시급”

## 광고주 압박 · 경영진 간섭 배제 필요 ...잘못된 취재관행도 개선돼야



▲ 생생한 현장취재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MBC 프로그램 <불만제로>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일익을 담당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청률과 광고시장을 의식해야 하는 방송사 자본 경영 위주로의 변화에 대해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제작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발전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청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청자와의 교감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보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재미를 잃게 된다.

둘째,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상품, 기업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이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도움이 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소재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작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제작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수시 교육이 필요하다. 시청자들은 ‘불만제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양한 소재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 제품 등은 프로그램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외압이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 제작진의 내적 통제도 상당히 큰 편이다. 이에 따라 방송사 경영진과 제작진의 확고한 의지와 독립성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넷째, 문제점으로 지적된 취재관행을 다양하고, 어떤 방식으로 취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소비자 관련 문제들이 워낙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기에 문제를 영상으로 제기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제시한 제언의 사회적 합의가 일정부분 이루어진다면 제작 방식도 변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번 논문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효과가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인식조사로 현재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인식 및 수용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같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현업 종사자, 방송정책 입안자, 방송사업 경영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인식조사가 같이 이루어져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사회적 방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을 정도로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또한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제작진의 제작 환경 등에 대한 부분은 상세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특히 방송사 경영적 측면의 어려움 등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정리 =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 방학중 학술세미나 풍성하게 열려

## ‘영상컨텐츠 상상력’, ‘다문화주의’ 주제로

우리대학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에서 지난 22일 초하당 세미나실에서 ‘상상력과 CT’란 주제로 ‘2010 영상문화콘텐츠 연구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원덕(영상영화학) 교수 및 최규남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이 개최사 및 인사말을 맡았다.

세미나에서 ‘컨버전스 사회로의 문화변동과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전망’, ‘심형래에서 백남준으로(문화기술, 미래, 그리고

교육개혁)’ 등 총 5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최규남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 24일 만해관에서 열린 ‘탈경계시대와 다문화 주의 심층 보기’ 학술 세미나는 우리대학 영어권 문화 연구소와 대학원 영문과, 문화 학술원 및 ‘초국가주의와 문화변역 연구단’의 공동 주관 하에 진행됐다.

‘탈경계시대와 다문화 주의 심층 보기’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 세션엔 이종임 문화 학술원 대중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 ‘TV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주의’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어 성창규(박사과정 수료), 손광수(영문학 박사) 박사가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multiculturalism 옛보기 - 미녀들의 수다와 무한도전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한편 오후 세션에서는 김순영(통번역학) 교수가 ‘번역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특강했으며 이에 대해 박소영(박사수료), 박미경(학석연계과정) 양이 발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종합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 이재용 아나운서 인터뷰

# “진정한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방송인 윤리교육이 선행돼야”



최근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각종 언론매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방송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각 방송사별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신설해 소비자의 권익 대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대부분을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방송사의 특성상 완벽한 고발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문제에 관한 논문으로 지난 19일 석사학위를 받은 이재용 아나운서를 만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한계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이재용 동문은 현재 MBC 아나운서로 재직 중이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의 진행을 맡고 있다. 이 동문이 석사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효과에 관한 연구’는 현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정의, 한계 및 해결방안을 담고있다. 논문에 대해 이재용 동문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소비자 패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해 이번 논문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가지는 제약과 해결 방안을 이번 논문을 통해 말

하고 싶었다”며 이어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은 방송사 경영 사정상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단적인 예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뤄던 상품 이 방송사 광고와 직접 연계되는 경우 광고 수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 제작비 등 현실적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관해 이 동문은 “광고비는 방송사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영적 문제를 고려해 대기업 및 광고 기업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인들의 언론 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며 “방송인들의 윤리 교육이 이뤄져야만 재정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고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이재용 동문의 논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프로그램 제작자, 고발을 당한 업체 관련 인물, 소비자들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보합설계사 등 300명에 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설문 결과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설문을 통해 사람들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논문 준비과정에 대해 “MBC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논문 작성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접하는데 용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논문이 없어 논문의 방향설정이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동문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논문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수 있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논문의 설문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일회성 보도에 치중하지 않고 후속보도를 통해 결과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논문이 진정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 지도자과정 모집

###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비스로서 부동산중개

#### 제기 부동산중개 최고위과정 모집

- 1. 지원 자격**
  - 부동산 중개업자 및 희망자
  - 부동산 중개법인의 임직원 및 소속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 및 중개업(보도인포함)등록자
- 2. 전형방법:** 서류심사
- 3.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2010. 3. 9(화)까지
  - 합격자 개별통보
- 4. 입학식:** 2010. 3. 10(수)
- 5. 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gspa.dongguk.edu>)
  - 지원서 다운로드 후 e-mail, Fax, 우편접수
- 6. 입학금:** 385만원
- 7. 문의처**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중개 최고위과정
  -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 Tel : 02-2260-8575 / 02-2272-5500
  - Fax : 02-6944-8075
  - e-mail : kim0222@dongguk.edu

### 녹색환경은 인간의 생존전략

#### 제기 녹색환경복지 지도자과정 모집

- 1. 지원 자격**
  - 대학생 및 직장인
  - 환경복지 등 경제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환경복지에 관심이 많은 여성
- 2. 전형방법:** 서류심사
- 3.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2010. 3. 23(화)까지
  - 합격자 개별통보
- 4. 입학식:** 2010. 3. 24(수)
- 5. 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www.wfkb.or.kr>)
  - 지원서 다운로드 후 e-mail제출(wfkb@naver.com)
- 6. 입학금:** 120만원 (본인부담 49만원)
- 7. 문의처**
  - Tel : 02-587-8844 정현준 조교
  - Fax : 02-587-3342
  - 홈페이지 <http://gspa.dongguk.edu>

## 동국108리더스 모집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을 오직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룬 지금의 시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좋은 대학’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 주체가 바로 나라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비전)은 본인이 설정해야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정)과 결과 또한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 4년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助力者)를 만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행운일 것입니다.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비전을 설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 본인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진정한 리더로서의 덕목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동국 108리더스’에 지원하세요.

- 1. 지원자격**
  - 1) 대 상 : 2010년 3월 현재 5,6학년 재학생
  - 2) 성 격 : 총평점평균 3.3 이상
  - 3) 어학능력 : 아래의 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취득한 학생  
TOEIC(600점), IBT(57점), TEPS(480), JLPT 3급(400점), HSK 6급(299점), OPIC(novice mid), TOEIC SPEAKING(LEVEL 4), 영어트랙 교육과정 B+이상
  - 4) 기 타 : 동국108리더스 수료시(2011년 6월)까지 휴학을 하지 않을 자
- 2. 선발인원:** 총12명
- 3.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4. 운영계획(인증조건)**
  - 1) 리더십 기초교육: 리더십 기초캠프 참가 및 자기개발 교과목 3강좌 수강(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협상 스킬, 인간관계향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갈등관리, 창의력 개발, 진로설정과 경력개발, 취업실전특강, 여성 리더와의 대화, 여대생의 자기개발과 진로탐색 등)
  - 2) 리더십 특강: 학생경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특강 3회 수강
  - 3) 리더십 전문교육: 국제인증관련 리더십 교육 2회 수료
  - 4) 리더십 심화교육: 리더십 이론 및 토론편(2010년 2학기 1학점 강좌) 수강
  - 5) 리더십 사회봉사: 단체사회봉사 40시간
  - 6) 리더십 해외봉사: 저개발국가로 해외봉사
  - 7) 리더스 클럽활동: 리더스 행사 참여 및 멘토링 2회
- 8. 성 격:** 총평점평균 3.5이상
- 9) 어 학 능 력 :** TOEIC(750 점), IBT(87 점), TEPS(633), JLPT 2급(700점), HSK 9급(339 점), OPIC(intermediate mid), TOEIC SPEAKING(LEVEL 6) 중 1개 취득
- 5. 제출서류**
  -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분량은 각 2page 이내로 작성)
  - 2) 자격증 및 성적, 어학능력, 사회봉사 시간 확인 위하여 사본 제출
- 6. 신청기간:** 2010년 2월 22일 ~ 3월 5일(금) 17시 까지
- 7. 신청방법:** 제출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후 u-Drims에 입력하고 한 부 출력하여 취업지원센터 리더십담당에게 제출
- 8. 서류합격자 발표:** 2010년 3월 11일(목) 18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예정
- 9. 선발자 특전**
  - 1) 리더십 교육비 전액 교비 지원
  - 2) 리더십 해외봉사 경비 70% 교비 지원(본인 30% 부담)
  - 3) 수료시 총장명의 ‘동국108리더스’ 인증서 수여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02-2260-3052 <http://leadercenter.dongguk.edu>

### 이주의 새책

## 스님들의 친근한 일상 이야기, '선객'



선객

지은이 법광 스님  
펴낸곳 한결음더  
10,000원 / 256쪽

평소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스님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선객(禪客)'이 지난 10일 우리대학 출판부 한결음더에서 출간됐다. 불가(佛家)에서는 참선하는 스님들을 일컬어 '참선하는 나그네', 즉 '선객(禪客)'이

라고 한다. 왜 하필 나그네에 비유했을까? 어느 곳에도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고 정진한다는 의미에서일 것이다.

'선객'의 저자 법광 스님은 '선객'이라는 말에 너무 잘 어울리는 스님이다. 떠나길 좋아해 수시로 걸방을 걸쳤으며, 색다른 경험에 기뻐하는 그런 스님인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법광 스님은 수행 정진에도 최선을 다한다. 1998년 가을, 통도사에서 3주간에 걸쳐 수계 받는 스님들을 지도하던 때의 이야기를 보면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2km 남짓한 거리를 3보 1배로 가야 하는데, 선뜻 선봉으로 나서는 스님이 없자 어김없이 법광 스님이 앞장을 섰다. 무릎이 너무 아파 중단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 번 다잡고 거기에 표정관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마쳤다.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아팠던 이유가, 다들 무릎에 두툼한 형겔을 대고 했는데, 그 쉬운 도리를 혼자만 몰랐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려하다 할 정도의 우직함이 있기에 스님의 웅만한 실수는 그저 재기발랄

정도로만 느껴진다. 출가하기 3일전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게 된 일화 등도 담아 스님의 일상과 수행 정진에 얽힌 살아있는 이야기를 보여 준다.

'선객'의 묘미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전문 사진작가 못지않은 해관 스님의 선운사 주변 풍경사진 또한 함께 수록하여 글에 청량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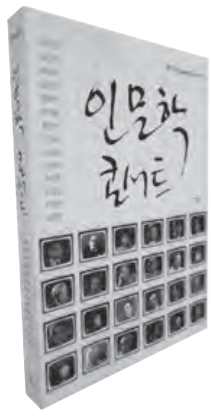
이렇듯 '선객'에는 법광 스님의 일상, 그리고 어렵게만 생각해왔던 스님들의 수행 이야기들이 맛있는 음식처럼 잘 버무려져있다.

한편, '선객'의 저자 법광 스님은 1985년 진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승가대학과 울원을 거쳐,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1기로 졸업했다.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6년간 참선을 했고, 해인사, 범주사 승가대학 강사를 거쳐 백양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는 전라북도 고창의 선운사 승가대학장으로 부임중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 화제의 책

## 우리 시대 대표 학자들, 인문학을 말하다



인문학 콘서트

지은이 최재천, 고미숙 외 4명  
펴낸곳 이숲  
15,000원 / 384쪽

최근 취업 위주의 실용학문이 성행하면서 인문학 분야 강좌의 비중(比重)이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추세다. 대학 강의실을 보더라도 기술, 경영 등의 실용 강좌는 북적이지만 철학, 미학 등의 인문학 강좌는 썰렁하기 그지없다.

이에 외면 받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대한민국 중견 학자 14명이 나섰다.

지난 1월 출판사 이숲에서 출간한 '인문학 콘서트'는 한국정책방송 KTV에서 매주 한 편씩 70여 편의 인문학 프로그램 '인문학열전' 가운데 대표적인 13편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로 엮은 것이다.

또한 문화평론가 김갑수씨가 우리나라 석학들 및 중견 학자들과 나눈 대담(對談)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인문학 콘서트'는 추상적(抽象的)인 거대담론으로 독자를 혼란시키는 것이 아닌 학생과 대화하듯 구어체(口語體)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며 난해한 학술용어보다 영화를 사례로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사회자 김갑수씨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하여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解消)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아무리 인문학이 중요하지만 실용 학문의 위상이 날로 치솟지 않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즈음에 사회자는 독자들을 대신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김기현 교수와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의 '우리 인문학의 길'을 읽고 나면 인문학 필요성에 대해 재차 묻지 않게 된다.

2008년 말 전 세계를 뒤흔친 금융위기는 인문학의 부재가 부른 재앙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젊은이가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월가로 들어가 만든 합작품이 금융위기다.

이들이 돈을 버는 데보다 어떻게 벌 것인가와 같은 인문학적 성찰(省察)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실용학문에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가치의 경중을 헤아리기 위해 인문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학문과 인문학의 통섭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새롭고 낮은 유혹, 통섭'에서 학문의 기초로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또한 현재 답을 못찾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대운하 문제'는 운송, 관광, 환경, 국민의 정서 등 다양한 요소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통섭적 인식'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책은 강의 내용과 관련 있는 저자의 책을 소개하며 '책 속의 책'을 담고 있다. 또한 주석을 활용해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다.

신기한 점은 14명의 학자가 표면적으로는 다른 주제를 전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서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가 '왜 책이어야 하는가'에서 삶의 질은 돈이나 부동산의 유무가 아니라 내적인 자산에서 결정된다는, 조강하면서 도시를 암송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자가 아니냐고 되묻는데, 이는 앞서 김경동 교수의 주장과 겹쳐진다.

이처럼 학자들이 내는 유사한 목소리는 페이지를 표시해 의견을 비교할 수 있는 재미를 준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 권보드레 교수의 독서산책

## '제정신'의 힘



폭력에 대항한 앙심  
지은이 슈테판 츠바이크  
펴낸곳 자작나무  
8,000원 / 287쪽

'폭력에 대항한 앙심-칼뱅에 맞선 카스텔리오'는 학생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책 중 하나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에서 살았던 유대인 문학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이른바 '전기소설'들은 한결같이 매력적이고 특히 입문서로 제격이지만, '카스텔리오'는 그중에서도 인상이 뚜렷한 책이다. 글쎄, 어쩌면 에라스무스나 마리 앙투아네트나 푸세를 다룬 다른 책들에 비해 이해의 폭과 깊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스스로 토로했듯 츠바이크는 "카스텔리오에게 완전히 빠져"든 상태에서 이 책을 썼고, 그런 만큼, 이해와 공감이 신랄한 해부와 더불어 빛나는, 그런 장면을 '카스텔리오'에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제바스티안 카스텔리오는 16세기 제네바를 지배한 칼뱅에 맞섰던 학자이다. 그 자신 가톨릭교에 영증을 느끼고 프로테스탄트교의 대열

에 합류했던 사람이지만, 카스텔리오는 칼뱅이 자신의 교리를 독단화시키는 데 단호히 저항했다. 16세기라면 종교 개혁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한편 프로테스탄트교가 새로운 권위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종교재판이, 처형이, 전쟁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당시는 인문주의 유행의 끝무렵이기도 해서 에라스무스나 라블레 같은 매력적인 인문주의자들이 활약했지만, 그들은 폭력의 순환에 우회적인 비판과 풍자로 대응했을 뿐이다. 에라스무스는 싸움이라면 질겁을 했고, 라블레는 희극으로 갈등을 넘어섰다. 이들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쪽에서 압박을 받았으면서도 총푼에 휘말려들지는 않았다.

좀 늦게 태어난 카스텔리오는 다르다. 그가 활동했던 제네바에서, 상황은 처음에 모범적인 듯 보였다.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뱅은 종교개혁의 물결이 휩쓸고 간 제네바의 통치를 위임받은 후 오직 '하느님의 뜻'에 따라 도시를 재편하고자 했다. 결백하고 사심 없으며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이 젊은 신학자는 일체의 사치와 허영과 무질서를 추방하고자 했고, 한두 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결국 자신의 의지 하에 제네바를 복속시켰다. 축제일도, 꽃과 장신구도, 종소리마저 도시에서 쫓겨났다. 그것으로 충분했으리라 칼뱅은 좀더 나아갔다. 스스로 신의 뜻을 실현하는 자임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기에 더 가차 없고 무자비한 정책이 가능했으리라. 드디어 1553년 칼뱅은 프로테스탄트의 역사에서 최초로 종교적 이단자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다.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에스파니아인 세르베토가 삼위일체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것이다. 그 도록 비판했던 가톨릭의 병폐가 개혁자들 사이에서 고스란히 답습되는 장면이다.

전 유럽이 술렁이는 가운데 카스텔리오는 분연히 일어선다. 그는 '이단자에 관하여'라는 책을 펴내 사상적 이견을 형벌로 다스리는 데 반대하고,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을 뜻할 뿐이다."라고 선언한다. 이미 이단을 죽인 권력자에 맞서는 길이니 응당 목숨을 걸어야 함을 모르진 않았으리라. 그럼에도 카스텔리오는 칼뱅과의 논전에 나서, 사실상 '유일한 앙심'으로서 독재적 권력에 항거한다. 이 분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무런 열정도 없이 나는 이 공개적인 토론의 무대로 들어선다."는 카스텔리오의 고백 때문이다. 이념에 맞서 이념이, 광신에 맞서 광신이 일어서는 광경이야 흔하지만 카스텔리오는 오직 이성과 관용의 원칙으로, 그러니까 무력하기 짝이 없는 '제정신'으로 '들린 정신'에 맞섰던 것이다. (나치즘이 절정에 이르렀던 무렵 작가는 이 책을 쓰며 거듭 그렇게 되뇌었을 터인데.) '제정신'이 꼭 무력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점점 '들려' 가는 이 시절에 '카스텔리오'를 읽으며 깨닫는 보람이다. (교양교육원 교수)

# 기업인사관리자 초청특강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200대 기업인사관리자를 모시고 2010년 1학기 「기업인사관리자 초청특강」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업비전, 선호 인재상, 채용계획 및 전망, 취업전략, 채용경험담, 질의응답
- 장 소 : 다항관세미나실 및 문화관 제1세미나실
- 접수기간 : 2010. 3. 2(화) ~
- 접수방법 : 본관 3층 취업지원센터 방문접수(무료!)
- 문 의 : 취업지원센터 2260-3054

회 별	일 시	특 강 명	강 사	장 소	
1회	3/9(화) 6시	LG전자	김 윤 흥(인사팀 차장)	다항관 세미나실	
2회·3회	3/10(수) 4시 6시	롯데그룹 두산그룹	이 영 환(인사팀 차장) 강 신 준(인사운영팀 과장)		
4회·5회	3/11(목) 4시 6시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지 세 근(인사팀 부장) 송 병 근(인사기획팀 과장)		
6회·7회	3/17(수) 4시 6시	AMOREPACIFIC KBS 한국방송	이 지 은(인사팀 과장) 김 희 중(인사팀)		
8회·9회	3/18(목) 4시 6시	SK 그룹 신진국제경영강사	전 중 민(인사팀 PL) 전 상 현(인사팀 과장)		
10회	3/23(화) 4시	신한은행	추 교 현(인사팀 과장)		
11회	3/25(목) 5시	신한은행	하 인 수(인사팀 과장)		
12회	4/30(금) 1시	KLI 한국노동연구원	강 순 희(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문화관 제세미나실

## 2010학년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고 기간 : 2010년 2월22일(월) ⇒ 3월12일(금) (3주간)
2. 신고 대상
  - 가.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나. 2010년도 편입생, 입학생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 대학원의 연구, 관리자 과정 / 복학과 동시 휴학자는 신고제외
    - ※ 2010년도에 전역한 학생은 2011년도에 전입신고
3. 신고 장소 : 학생서비스팀 예비군 연대본부 (본관 3층)
4. 신고시 지참물 / 관심사항
  - 가. 전역증 (군번, 주특기, 입영일, 전역일 등 신고서 작성시 필요)
  - 나. 미등록자는 대학 예비군에 편성불가
  - 다. 신고는 예비군 연대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U-drums(학사정보-병무-전입 신고)란에 하신면 되며 반드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승인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함
5. 기타 상세 문의 : 예비군 연대본부 ☎ 2260-3047-8
  - ※ 휴학기간 중 '09년도 지역에서 부과된 미필자는 전입 신고 시에 필히 훈련 미실시 여부를 담당자에게 통보바람.
  - ※ 대학 직장 예비군에 미신고시 동원훈련(2박3일) 또는 동미참훈련(36시간-20시간)을 받아야하나 학생예비군으로 신고 시에는 1일(8시간)훈련을 받으면 됨.
  - ※ 반드시 신고하여 면학분위기에 기여함은 물론 법적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황금철  
전기공학부 교수

달하나 천강에

이제는 변해야 한다

자외선 타외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필수 상담제도 덕분에 많은 학생들과 면담할 기회가 많아졌다. 1학년 신입생부터 졸업생 앞둔 4학년 학생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생활과 그 속에 묻어 있는 고민들을 듣다보면 내가 대학생이던 십 수년 전 시절이 절로 떠오르게 된다. 그것은 단지 내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학교로 부임(赴任)해서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나의 대학시절과 현재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활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그랬다.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공부는 뒷전이었고,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신나는 대학생활을 즐겼다. 졸업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생각의 사치였고,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반이 되고 난 후에 생각해도 될 일들이었다. 운 좋게도 당시 높은 경제성장 시기에 있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준비도 덜된 대학 졸업생들을 흡수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나는 학생 상담을 통해 10년 전 대학생활의 패러다임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당수의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20년 전 선배에게서 10년전 선배에게로 그리고 또 현재의 선배들이 그 후배들에게로 전해지는 변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독특한 대학 문화.

이제는 변해야 한다. 학교 울타리 밖의 세상은 10년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변화를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다. 4년 혹은 6년 뒤 여러분이 졸업 후 맞이하게 될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져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동국대학교 정문을 들어선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하고, 시작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졸업 후 사회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을 나의 모습을 그려야 하며 더 괜찮은 '나'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되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 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나태해 질수 없는 노릇이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세운 목표에 맞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한순간도 게으름이 없다면 성공한 대학 생활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감을 가지자. '여기'를 졸업했으니 안된다는 변명을 하기에 세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공평(公平)해 졌다. 세상이라는 괴물에 맞서 싸울 '나'는 얼마나 준비가 잘되어 있는가' 만 생각하면 된다. 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자.



학생칼럼

강현석  
사회학과 4학년

바람직한 술 문화

“다음에 술 한 잔 하자” 길에서 만난 옛 친구에게 내가 건넨 마지막 인사다. “형, 저 할 얘기 있는데 술 한 잔 해요” 종종 후배들이 술자리를 빌어 내게 고민을 털어 놓는다. “오를 축구경기도 있는데, 애들 모여서 술 한 잔 해야지” 동아리 선배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전화를 걸어온다. 술은 친근함의 표시이자,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아울러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내는 매개체이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술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울릴 수 있을까? 난 이 상황을 문화의 빈곤내지는 상상력의 부재라 표현하고 싶다. 술자리 말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만한 즐길 거리는 없는가? 경계를 허물 수 없을까? 친해질 수 없을까? 이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摸索)한 적이 있었는가?

대학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문화는 새터나 엠티에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술자리이다.

사실, 술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기

가장 편한 방법이며, 대학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요소일 뿐이지 결코 전부 아니다. 새터나 엠티가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해 가는 것이라면, 본교가 바라는 대로 그런 새터나 엠티는 필요 없을 것이다. 새터나 엠티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다. 서로 어울리고 나아가기 위함이 새터나 엠티의 본질이며, 이 바탕엔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이 있다.

지나친 술 문화는 결국 사람을 해친다. 공공의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나 권유를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지나친 술 문화가 사람을 해친다면 이는 분명 한 모순이다.

대학 술 문화의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문화에 이미 길들여진 신입생이 재학생이 되었을 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데 있다. 이것이 지나친 술 문화의 탓을 재학생들에게만 돌릴 수 없는 이유다. 그들은 익숙한 대로 답습할 뿐이다. 술자리 말고 다른 만남

의 방식을 고민할 여유 혹은 여지가 그들에게 없었다. 그들의 진정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것은 대학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미 우리사회에 만연한 문화의 빈곤과 상상력의 부재는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을 술자리란 좁은 우물에 한정시켰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서로간의 대화를 진척(進捗)시킬 수 없는 닫힌 개인들, 소통법의 부재 속에 우리 모두는 진정 모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모른다.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에 있어서 사람이 아닌 술이 주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새터나 엠티에서 술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술자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흥에 취하고픈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술자리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기억하자. 우리가 술을 통해 연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며, 지키고자하는 바는 공동체이다. 이제 대학생들의 기지(機智) 넘치는 상상력을 취업만이 아니라 건설적인 공동체문화를 위해 발휘할 때다.



독자투고

박수진  
물리학과 3학년

일산병원 근로 장학 체험기

방학 중 '288만원+a'를 벌 수 있다는 광고 같은 글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약 2달 동안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49명이 우리 대학 부속병원인 일산불교병원에서 일하게 됐다. 병원에는 진료부 이외에도 많은 행정부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게 된 일은 주로 서류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일했던 전략경영실은 병원의 운영전략을 수립(樹立)하고 평가하는 곳이었고 다른 49명의 학우들은 각각 기획예산팀, 시설관리팀, 운영지원팀, 등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기획예산팀에서 근무한 임정훈(경제07)군은 “병원에 생각보다 큰 행정부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고 했고, 물류팀에서 근무한 천유강(회계05)군은 “이렇게 큰 병원을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인력이 동원된다는 것과 병원의 자산들이 모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영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도 이곳에서 근로 활동을 하기 이전까지는 병원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고, 이는, 다른 학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와 관련해 재학생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우는 91명이었지만 그 중 병원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서 정답을 모두 고른 응답자는 딱 두 명이였다.

한편, 재학생 진료비 할인 혜택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할인이율 이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는 학우들은 얼마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할인이율이 높은 건강검진 경우에는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방학 동안에는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산병원에서는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안과 라섹수술 비용을 30% 할인했었다.

한편, 학생들이 병원에 바라는 점으로는 역시 재학생 할인율을 높여달라는 것이었다. 학교 내에 학생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학교 병원에서 캠퍼스 안에 진료가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 아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 밖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버스를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나 병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當付)하는 학우들도 있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요즘이다. 자칫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학이지만 이번 국가근로장학 활동을 통해 학우들은 적지 않은 수입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은 결코 배우기 힘든 새로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학교 안에서는 만나기 힘든 선배님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었다는 것도 즐거웠던 일이었다.

만평



2010학년도 신입생의 입학 축하합니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2010년 1학기 모의직무적성검사

- 대 상 : 전교생(재학생·휴학생·졸업생)
- 검사비용 : 학교부담금 11,000원 / 학생부담금 3,000원
- 신청방법 :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문 의 : 취업지원센터 (2260-3054)

구분	대상	접수기간	일시	장소	비고	
삼성그룹	SAMSUNG 삼성 SSAT 해법특강	600명	3. 4(목)~	3. 16(화) 14:30~17:00	중강당	150분
	SAMSUNG 삼성 직무적성검사	300명	3. 4(목)~	3. 16(화) 17:20~20:30	중강당	175분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200명	3. 4(목)~	3. 4(목) ~4. 23(금)	온라인	-	

\*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종류 : 삼성, SK, LG CNS, CJ, LS, LG화학, 동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화, 하이닉스, 두산, STX, 현대기아자동차, GS  
\* 참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검사 실시 하루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중앙도서관 이용시간 안내

건물	층	장소	요일 구분	
			평일	토요일/일요일
중앙도서관	3층	불교학자료실	09:00-21:00	09:00-17:00
	2층	대출반납실		
		멀티미디어실		
	1층	자연과학실		
	지하 1층	사회과학실		
	지하 2층	인문과학실		
	4층	증축 열람실	06:00-24:00	
지하 3층 별관 열람실			08:00-23:00	
PC 검색코너			08:00-23:00	
법학도서관	3층	단행본실	09:00-21:00	09:00-17:00 (일요일 휴관)
		멀티미디어실		
	2층	참고자료실		
1층	열람실	24시간 개방		

\* 기간 : 2010. 3. 2(화) ~ 6. 21(월)  
\* 학기 중 일요일에도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 및 법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은 일요일 휴관입니다  
\* 시험기간 중 이용시간 안내는 별도로 공지 예정



해문스님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 사무처장

시론

조선왕실의례 반환운동에 거는 기대

2010년 2.25일 18대 국회는 일본 공내청 소장 '조선왕실의례'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어, 현 일본 공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실의례의 반환을 촉구(促求)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이 책임감 있게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과거사에 대한 의미 있는 반성의 표명(表明)과 함께 '조선왕실의례'를 즉각적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왕실의례'의 환수(還收)를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조선왕실의례는 조선시대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과정 등을 상세하고 적고 그림으로 만든 문서이다. 이는 의례의 본모습을 만들고 후대에 전하고자 도감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문서로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자랑스런 한국민족의 문화유산이다.

지난 2006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의 환수 성공을 토대로 우리는 일본 공내청 소장 '조선왕실의례'의 환수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 공내청에 소장된 명성황후 장례의 기록 '명성황후 국장도감의례'이다.

명성황후를 찢은 칼 '히젠도'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본 것, 명성황후를 죽이고 국부검사를 자행한 기록 '에이조 보고서'를 입수한 것 등이 '의례환수' 운동에 더욱 사명감을 불어 넣어 준 사건이었다. 뻔뻔스럽게 남의 나라 국모를 죽이고, 국부검사를 자행하고, 장례식의 기록마저 약탈해간 채 아직도 일본 왕실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 사건에 깊이 끌어 들였다고 할까?

명성황후 장례식은 '대한제국'의 성립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불안한 정치구조 속에서 2년 2개월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조선의 슬픔은 '대한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또한 명성황후의 장례는 조선시대 치러진 마지막 국장이자 황제국을 선포한 뒤 이뤄진 최초이자 마지막 장례이다. 그런 마지막 왕비의 슬픈 장례식에 대한 기록

이 일제에 의해 일본 왕실로 옮겨진 것, 그것은 한 나라에 대한 모욕(侮辱)이자 되찾지 못한 인질과 같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60년이 지나도록 되찾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 버렸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 왔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그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되새겨 볼 시점에 서있다. 잃어 버린 것을 찾는 것은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주인이 스스로의 임지를 다지는 행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 제자리찾기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정신을 찾는 과정이자, 우리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온 민족이 노예로 떨어졌던 100년 전의 슬픈 역사를 디디고 주인으로 우뚝 서는 운동으로써 문화재 제자리찾기가 자리매김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한다. 조선왕실의례 환수는 잃어버린 어떤것에 대한 간절 한 민족적 갈망(渴望)이다.

사설

약대 신설, 동국 발전의 기틀로 삼자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현장 실사 결과, 우리대학이 약학대학 신설대학으로 최종 선정돼 2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15개 대학이 20~25명 정원으로 약대를 배정받았다. 교과부의 '초미니 약대' 선정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추후 약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다소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약대 유치라는 대업 달성은 지난 수개월 동안 전심전력으로 노력했던 대학과 종단, 고양시, 그리고 모교의 성공을 기원하는 많은 동문들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약학관 신설을 위시로 한 일산의생명과학캠퍼스 완공(完工)이다. 약대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未備)할 경우, 추후 대학별 심사에서 2012학년도 추가 정원배정이 취소될 수 있고, 학생 모집마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대와 관련해 현재 우리대학은 총 942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9,997.5㎡ 규모의 약학대학 전용건물인 약학관을 내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적인 약대 운영을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약학관을 완공해야 한다. 대학본부의 빠른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는 우리대학이 고양시와 경기도와 함께 준비 중인 고양메디컬리서터 구축에 중추(中樞)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약대 유치를 계기로 우리대학 의생명과학캠퍼스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생명과학 연구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를 동국대가 세계적인 대학의 반열(班列)에 오를 수 있는 기틀로 삼아야 한다.

새내기 동국인들을 환영하며

최근 크게 바뀐 대학 풍속도 가운데 하나는 입학식이 빨라졌다는 것이다. 졸업식보다 입학식을 먼저 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이 상아탑이나 낭만의 공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는 변화이다.

새내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갑자기 바뀐 현실과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게 되는 현상이다. 새내기들은 주변의 축하와 격려 가운데서 이러한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새내기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새내기들은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꿈꾸지만, 급변하고 있는 현실은 팍팍한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진로를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정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대학시절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각종 커뮤니티에 참여해 쉽게 얻을 수 없는 경험도 쌓아야 한다. 넷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대학시절 쌓은 인맥은 대학생활은 물론 취업, 직장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양한 경험을 인맥 형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남들은 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만의 장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쪼록 '동국'이 새내기들에게 학문에 정진하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는 마당이 되길 기원하며, 동국의 발전을 자신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그저 '우리 동국'이 아니라 '내[我] 동국'으로 만드는 자부심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



메아리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메아리

표리부동(表裏不同)

▲표리부동(表裏不同)이란 사자성어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사람이나 사물 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발언이 실상 속마음과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표리부동한 사례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의 환경 친화적인 특성을 부풀리거나 조작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그린 워싱, 청렴결백을 강조하던 정치인의 비리 파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1월, 우리대학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했다.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대학본부의 2년 연속 등록금 동결 결정은 놀라운 결정이었다. 대학본부는 동결 이유를 '경제 한파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어 드리는 것 또한 대학의 커다란 책무(責務)'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

학의 각고(刻苦)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도 이뤄졌다. 입학금이 9.9% 인상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3만원이었던 입학금은 9만 2천원 오른 1백 2만 2천원이다.

▲우리대학 입학금은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매년 7~11% 정도 인상됐다. 해당 기간 동안 물가인상률이 2~3%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량 인상된 것이다. 대학 측에 따르면 입학금은 보통 신입생에게 제공되는 오리엔테이션, 입학행사, 데이터 구축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고, 4년간 신입생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비용이 9.9%이상 인상됐다고 생각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

개하지 않는 한 납득(納得)하기 어려운 인상률이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을, 신입생들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학본부의 자애(慈愛)롭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동국인 따로 예비 동국인 따로 대우하는 것이다.

▲2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학본부의 태도가 입학금 인상으로 인해 퇴색(褪色)돼버리고 말았다. 동국인들의 고통은 분담하면서 예비동국인들의 고통은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입학금 인상은 결국 항변(抗辯)할 수 없는 약자에 대한 부담 전가(轉嫁)할 수 밖에 없다. 진정으로 동국인들과 고통분담을 위해 등록금을 동결 결정을 내렸다는 대학본부의 태도가 표리부동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유훈우, 편집장 정웅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다학제적 캡스톤 디자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논문 공모전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학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상호 밀접한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다양한 공학적 지식을 다학제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생들의 다학제적인 설계 응용 능력제고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캡스톤 디자인(종합 설계 프로젝트) 수업을 개편하고 활성화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논문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 신청을 하고 결과물(제안서, 논문)을 제출한 모든 팀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들에게는 포상뿐만 아니라 다음 년도의 캡스톤 디자인(종합 설계 프로젝트) 수업의 다학제적인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 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명 : 다학제적 캡스톤 디자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논문 공모전  
2. 참가대상 : 공과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개인 및 팀 (교수는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  
3. 대회일정  
- 결과물 제출기간 : 2010.03.08(월) - 03.19(금) 18:00까지  
- 신청서 및 결과물 양식 : 공대 각학과 및 공학교육혁신센터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http://iceed.dongguk.edu)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처 및 문의 : 공학교육혁신센터 ☎2260-8840  
- 전시/시상 : 2010.03.19(금)  
4. 포상  
\* 참가 인원과 결과물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1팀 : 학장상, 상금 100만원  
- 금상 1팀 : 공학교육혁신센터장상, 상금 50만원  
- 은상 2팀 : 공학교육혁신센터 분과위원장상, 상금 30만원  
- 동상 3팀 : 공학교육혁신센터 분과위원장상, 상금 20만원  
- 장려상 5팀 : 공학교육혁신센터 분과위원장상, 상금 10만원  
※ 포상 논문은 한국공학교육학회 및 기타 학회 학술대회 발표 예정임  
공학교육혁신센터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10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 모집과정  
과정명 분야 세부과정명  
특별교육 스포츠 골프매니지먼트/티칭지도사, 어린이스포츠산업 전문가  
예술·문화 설치구해과정(앉은반, 선반), 아유르베다, 아트마켓&아트테크, 홍신선교수의 시장직판, 한국전통무용(입춤), ※ APP(에스테틱전문가)  
교육·철학 명리학최고지도사, 명상심리치유사, FNT(사성제)와 자비명상전문자격과정  
경제·경영 FX(외환) 채테크과정, 부동산재테크, SCAE국제바리스타 커피전문가  
전문자격증 대평교협 가요전문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북아트지도사, 색채심리지도사, 어린이한자지도사, 주산활용수학교육사, 한문지도사  
민간자격/국가공인 두뇌개발교육지도사, 국제아로마테라피스트DIY창작반, 선유가·선무도, 약용식물관리사, 지문평가사, 표현예술치료(1~6단계), ※ PIA민간조사사(탐정) 최고전문가, ※ TESOL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 방과후 수학지도사 양성과정, 방과후 수학지도사 중등과정, 방과후 과학실험지도사, 방과후 한국사논술지도사  
불교문화 불교전문반 밀교사상, 기신론사상, 참선수행, 반야중관사상, 법화전태사상  
불교연구 불교무용, 불교상담사, 불교영어, 불교의식실용반, 불교입문기초과정, 다석화·선화, 불교정통꽃꽂이, 불교한문, 불교미술(불화), 비교종교, 참선수행  
교양 동양철학 기문정명학, 기문정명학전문가, 사주명리학, 사주명리전문가, 명리학, 성명학, 생활풍수, 육임, 육임전문가, 인상과개운, 하락이수, 현공풍수  
문화예술 가요강좌, 고전전통무용, 기본한문, 시낭송전문가, 이미지메이킹을 통한 자기개발, 문인화, 사군자, 서예, 전통민화지도사, 전통민화실기, 한지화, 전통생활지수  
Cyber 자격증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공인중개사  
동양철학 명리학, 성명학, 타로카드  
접수기간 2010년 3월 6일(토), 강좌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접수 및 납부방법 ① 인터넷 수강신청 후 가상계좌 이체, ② 인터넷 수강신청 후 방문 카드결제 (BC, 국민, 삼성, 신한)  
문의 및 접수처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02)2260-3728~3730  
http://edulife.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 금주의 식단 ●●●  
동국관  
월(3/1) 삼일절 휴무  
화(3/2) 섬산적구이(2200)/돈가스(2500)/오삼불고기덮밥(2200)/부대찌개(2500)  
수(3/3) 장조림백반(2500)/치킨가스(2500)/햄치볶음밥(2200)/순두부찌개(2500)  
목(3/4) 햄구이(2000)/함박스테이크(3000)/해물덮밥(2200)/떡볶이불고기(3000)  
금(3/5) 고추참치(2200)/치즈돈가스(3000)/닭고치볶음밥(2500)/순두부국(2500)  
상록원  
월(3/1) 육개장(2000)/카레라이스(2000)  
화(3/2) 만두탕수(2000)/치즈돈가스(3000)/계몽덮밥(2200)/순두부찌개(2500)  
수(3/3) 깐풍육(2200)/함박스테이크(3000)/김치볶음밥(2200)/떡볶이불고기(3000)  
목(3/4) 모듬장조림(2500)/돈가스(2500)/오삼불고기덮밥(2200)/참치섞어찌개(2500)  
금(3/5) 치킨샐러드(2200)/새우가스(3000)/산나물볶음밥(2000)/바지락된장찌개(2500)  
아리수  
월(3/1) 삼일절 휴무  
화(3/2) 체육비빔밥(2200)/치킨가스(2500)/고추잡채덮밥(2200)  
수(3/3) 낙지덮밥(2200)/치즈돈가스(3000)/버섯덮밥(2200)  
목(3/4) 닭갈비덮밥(2200)/카레돈가스(2800)/참치문볶음밥(2000)  
금(3/5) 김치불고기덮밥(2200)/새우가스(3000)/산채비빔밥(2200)  
혜화관  
월(3/1) 삼일절 휴무  
화(3/2) 돈갈비두루치기(2200)/치즈돈가스(3000)/모듬볶음밥(2200)  
수(3/3) 유산술덮밥(2200)/불고기된장찌개(2500)/날치말차비빔밥(2200)  
목(3/4) 낙지덮밥(2200)/치즈불닭술밥(3000)/소고기볶음밥(2000)  
금(3/5) 삼겹살야채비빔밥(2200)/돈가스(2500)/치킨골스덮밥(2200)



▲입학식이 열린 장충체육관 입구에서 동아리 홍보 책자를 받는 차봉권 군과 전소희양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 새내기 2인과의  
입학식 동행 인터뷰

“차별, 상처받고  
자랑스런 동국인으로”

우리대학은 2010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가정자녀 전형’을 신설했다. 이 전형을 통해 우리 대학에 입학한 다문화 가정 자녀 2인과의 동행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르다는 것이 '틀림'이 아닌 '특별함'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2010년 수시 1학기에 신설된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을 통해 우리 대학에 신입생이 된 차봉권 군(전자전기공학부)과 전소희 양(철학윤리문화학부)이다.

차 군은 필리핀 어머니를, 전 양은 일본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 어린시절 피부색깔, 어머니의 국적으로 놀림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들은 우리대학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을 자신들에게 '틀림'이 아닌 '특별함'을 선사했다며 감사하다는 말로 동행 인터뷰의 서두를 열었다.

우리는 2010 새내기!

우리대학은 2010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을 신설했다. 이 전형은 다문화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선도(先導)하기위해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전형이다.

이번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을 통해 우리 대학 새내기가 된 차봉권 군(전자전기공학부)과 전소희 양(철학윤리문화학부)이다.

그들은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각각 전자전기공학부, 철학윤리문화학부에 합격할 수 있었다. 차군은 고등학교 때 전자부품 조립에 몰두(沒頭)하여 서울시 주최 실기경진대회에서 은메달을 받은 실력파이며, 전양은 고등학교 때 반장으로 활동하고,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자격증을 딴 이력이 있다.

지난 22일 공과대학 OT가 진행된 본관 중앙강당. 전자전기공학부가 모인 자리 중 맨 앞 좌석에 앉아 공학인증제 및 수강신청과 관련된 설명을 듣는 차봉권 군의 모습은 진지하다. “수강신청 어려울 것 같네요”라며 머리를 긁적이는 그의 모습에서 긴장(緊張)된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옆에 앉은 친구들과 아직은 서먹서먹하게 앉아있는 차봉권 군에게 선배들과의 캠퍼스 투어 시간은 선배, 동기들과 한층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내일 입학식이 기대되네요”라며 웃으며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설레임을 읽을 수 있었다.

입학식, 동국을 느끼다

23일 입학식(入學式). 입학식이 열리는 장충체육관을 향하는 길에서 차군과 전양은 여느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설레는 모습으로 가득했다.

장충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 전소희 양은 “집을 나갈 때 4명의 동생들의 배웅을 받고 나왔다”며 어머니께서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칭찬을 하셨다고 기뻐하며 이야기했다.

장충체육관 입구에 위치한 각종 동아리 홍보 현상. 차 군과 전 양의 시선은 동아리 홍보 책자에 향한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전소희 양과 “심화된 전공 공부도 할 수 있고 선, 후배도 많이 사귄 수 있는 동아리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동아리 홍보 책자를 받는 그들에게서 새내기만의 풋풋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학식 시작 후 여러 동문들의 입학 축하 메시지 영상을 본 전소희 양은 “TV에서 저분들을 많이 봤지만 동문인지 몰랐어요”라고 말하며 “저분들과 같이 자랑스런 동국인이 되고 싶다”는 소망(所望)도 내비쳤다.

주변사람들의 격려가 큰 힘

차봉권 군은 검은 피부 색깔 때문에 어린 시절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전학을 갔고 그곳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잠시 방황(彷徨)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따뜻한 훈계와 지도 덕분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차봉권 군.

그는 실기 경진대회에 나가보자는 선생님의 제안에 매일 밤 9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도 하고 기능대회 선수 훈련 준비를 했다고 한다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나의 적성(適性)도 찾을 수 있었다”며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 전형으로 입학한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쉽게 특별전형으로 들어왔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밝히는 그의 모습에서 열정적인 차기 공학자(工學者)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전공 공부가 기대되요!

“역사(歷史)시간 마다 놀림을 당해 그 시간이 유난히 싫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애틀

이 일본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야기하면 이를 바로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이후로 역사에 대한 공부에 몰두하게 됐다는 전소희 양. 전양은 사실 사학과에 지원하고 싶었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과 중에 사학과가 없었어요”라고 말하며 내년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더불어 철학 공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인 철학(哲學)을 공부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전문 상담사가 되고 싶은 나에겐 철학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손을 내밀다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차후 계획을 묻자 차봉권 군과 전소희 양은 오는 4월부터 경북지역의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과 온·오프라인에서 만나 공부를 돕고 고민도 들어주는 ‘대학생 멘토 1호’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대학생활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소희 양은 “담임선생님을 비롯해 친구, 부모님 등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없을 것이다”며 “자신이 받은 도움들을 또 다른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차봉권 군은 “멘토링 사업의 주최자인 한국다문화센터로부터 같이 참여하자는 연락이 왔을 때 매우 기뻐다. 내 경험을 살려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이 주변사람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손길을 다른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차봉권군, 전소희 양. 대학생으로서, 멘토로서 활약할 그들의 파스한 열정을 기대해본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밥도 안 사 주면서 아는 척만 하는 선배들 조심해,  
진짜 피곤한 인종들이거든,,

정체불명의 선배들이 나를 부른다.  
“살고 싶다면 가입하라.”

리얼 캠퍼스 시트콤  
**소리소리**

신세대 동문 작가 아홉 명이  
새내기 후배들에게 대학생활 노하우를 선물한다.



변형 신국판 | 262쪽 | 8,000원

손홍규 소설가 2001 작가세계신인상, 박진규 소설가 2005 문학동네소설상, 홍석진 극작가 2008 옥광희극상, 남상욱 극작가 2004 대산대학문학상, 윤고은 소설가 2008 한겨레문학상, 신현대 소설가 2001 세계일보 신춘문예, 정영효 시인 2009 서울신문 신춘문예, 최문애 극작가 2009 동아일보 신춘문예, 임세화 소설가 2007 창비신인소설상

02)2260-3483, 2264-4708 동국대학교출판부

도서출판 한결음 · 더는 동국대학교출판부의 자매브랜드입니다.